

安大簡 《仲尼曰》 譯註

— 전래본 《論語》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

김 정 남*

〈目 次〉

- | | |
|------------------------|---------------------------------------|
| I. 서론 | III. 安大簡 《仲尼曰》에 포함된 전래본 《論語》 관련 항목 譯註 |
| II. 安大簡 《仲尼曰》의 문헌학적 특징 | IV. 결론 |

I. 서론

2022년에 발표된 《安徽大學藏戰國竹簡(二)》(이하 安大簡)에 수록된 《仲尼曰》은 전국시대에 필사된 공자(孔子) 어록집이다. 죽간 자료의 분량은 모두 13매이며 보존 상태가 양호해서 죽간의 파손, 결실, 자형의 번짐이나 착간(錯簡)등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았다. 죽간의 길이는 43cm, 폭은 0.6cm 정도이며 두 줄로 죽간을 엮은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문헌은 본래 제목이 적혀 있지 않았다. 정리자는 13호간의 “仲尼之耑誦” 중에서 “耑誦”가 해석상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仲尼曰”을 제목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13매 죽간에 쓰인 공자의 발언 모두 “仲尼曰”로 시작한다. 전래본 《論語》 역시 공자의 발언을 각각 “子曰”로 구분하는데 형식상 동일하다. 수록된 항목은 모두 25개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래본과 일치하기도 하며 주제는 일치하지만 한자, 어휘상으로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25개 항목 중 전래본 《論語》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8개이다. 그 밖에도 《大戴禮記》, 《禮記》, 《孔叢子》, 《易林》, 《中論》, 《墨子》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仲尼曰》이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전 350년 사이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공자의 사망 연대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자사(子思) 생존 연대와도 일부 겹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論語》의 초기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論語》 외의 다른 문헌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래본 《論語》는 시대에 따라 수록 내용이 끊임없이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차이점을 통해서 《論語》의 형성 과정과 문헌의 역사에 대해 새롭게 연구할 수 있을 단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존하는 중국 선진(先秦) 문헌 중에서 《論語》 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에도 공자의 발언이 수록되었으나 《論語》에 수록된 공자의 발언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安大簡 《仲尼曰》와 대조 가능한 8개 항목에 대해 문자 상의 특징으로부터 항목 전체의 특징을 역주 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I. 安大簡 《仲尼曰》의 문헌학적 특징¹⁾

安大簡 《仲尼曰》은 전국시대에 편찬된 《論語》 관련 문헌이다. ‘仲尼曰’로 시작하는 25개 발언 내용을 나열하였다는 점에서 정리자는 《論語》의 초기 형태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論語》

1) 2장에서 다룬 문헌학적 특징은 지난 2023년 6월에 개최된 영남중국어문화회 춘계학술대회 전 논문 전반에 대해 검토해주신 성균관대학교 책임연구원 성시훈 선생님의 의견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며 지면을 빌어 재차 사의를 표한다.

와의 관련성 문제는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仲尼曰”이다. 《論語》는 공자를 ‘子’로 지칭하지만 《仲尼曰》은 ‘仲尼’로 지칭하였다.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지만 호칭이 달라진 이유를 감안한다면 저자가 공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전통적인 견해를 토대로 한다면 공자의 재전제자들이 《論語》를 편찬하였으며, 그들의 스승이자 공자의 직전제자에게도 “有子曰”, “曾子曰”과 같이 표현하였다. “子曰”은 공자를 지칭하는 유일한 호칭이며 《論語》 외의 기타 유가 문헌 《禮記》와 《周易》〈繫辭傳〉 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論語》에서도 ‘仲尼’가 4회 출현한다.

- ① 衛나라 公孫朝가 子貢에게 물었다. “仲尼는 어디에서 배웠는가?” 夫子께서 어디에서인들 배우지 않았겠으며, 또 어찌 일정한 스승이 있었겠는가?”²⁾
- ② 陳子禽이 子貢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조심스럽습니다. 仲尼가 어찌 그대보다 현명하겠습니까?” 子貢이 말했다. “..... 夫子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은 마치 하늘을 사다리로 오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夫子께서 나라나 집안을 얻으신다면..... .”³⁾
- ③ 叔孫武叔이 朝廷에서 大夫들에게 말하였다. “子貢이 仲尼보다 훌륭하다.”⁴⁾
- ④ 叔孫武叔이 仲尼를 헐뜯으니, 子貢이 말하였다. “그러지 마십시오. 仲尼는 헐뜯을 수 없습니다.”⁵⁾

2) 《論語》〈子張〉: 衛公孫朝問於子貢曰: “仲尼焉學?” 子貢曰: “夫子焉不學? 而亦何常師之有?”

3) 《論語》〈子張〉: 陳子禽謂子貢曰: “子爲恭也, 仲尼豈賢於子乎?” 子貢曰: “..... 夫子之不可及也, 猶天之不可階而升也. 夫子之得邦家者, 所謂立之斯立,”

4) 《論語》〈子張〉: 叔孫武叔語大夫於朝, 曰: “子貢賢於仲尼.”

5) 《論語》〈子張〉: 叔孫武叔毀仲尼. 子貢曰: “無以爲也, 仲尼不可毀也.”

“仲尼”는 공손조(公孫朝), 숙손무숙(叔孫武叔) 등의 권력자가 공자를 지칭한 표현이다. 진자금(陳子禽)은 공자 관련 인물로 보기 어렵다. 자공(子貢)은 ①과 ②에서 질문 속의 “仲尼”를 “夫子”로 변경하여 지칭하였다. 이처럼 유가학과 내에서 공자를 ‘子’로 지칭한 사실은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子’가 아닌 공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仲尼曰》의 저자가 유가 학파가 아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형식상 동일하더라도 《仲尼曰》이 《論語》와 결이 다른 문헌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두 번째로 《仲尼曰》에 출현한 도가 관련 어휘이다. 7호간 “古之學者自爲, 今之學者爲人”은 《論語》〈憲問〉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과 대응하는 구절이다. 대부분의 표현이 동일하지만 전래본 《論語》의 “爲己”가 《仲尼曰》에서는 “自爲”로 쓰여 있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어휘 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겠으나 사상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自爲”는 도가 사상과 관련이 깊은 어휘이다. “自然”, “自化”, “自賓” 등도 도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이 표현들은 모두 “지배-피지배”라는 인간 세상의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지배자의 인위적 지배의 불필요를 無爲로, 피지배자의 자발성 또는 자율성을 “自+술어”로 표현한다. 이와 같은 “自”의 개념화가 당시 사상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仲尼曰》의 이 구절을 이와 같은 도가적 경향으로 본다면, 도리어 《論語》에 보이는 공자의 말을 기본으로 두고 변용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자로부터 시작된 유가 철학은 전통적으로 학문의 목표를 수기(修己)와 안인(安人) 혹은 치인(治人)으로 둔다. 수기(修己)는 안인(安人)을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출사하지 못해 安人이 불가능할 상황이라도 수기(修己)는 여전히 관철해야 할 목표로 남아 있다. 이것이 “爲己”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른 개념으로부터 변용되어 출현한 개념이 아닌 유가에서 추구하는 학문 목표로부터 비롯된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두 가지 사안은 《仲尼曰》이 《論語》의 초기 형태일 가능성과 더불어 다른 학파도 공자의 발언을 선별하여 문헌으로 편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근거이다. 다시 말해서 《論語》와 같은 공자 어록이

유가 학단 내에서만 편찬된 것이 아니라 유가학단 외의 다른 학파에서도 필요에 따라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論語》 판본 다수가 유교를 국교로 채택한 漢武帝 이후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어려웠으나 《仲尼曰》은 여러 사상 체계가 공존하며 경쟁했던 전국시대 문헌이므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Ⅲ. 安大簡 《仲尼曰》에 포함된 전래본 《論語》 관련 항목 譯註

2장은 전래본 《論語》와 관련 깊은 8개 문장을 고문자 분석, 자형과 어휘의 연결 양상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고자 한다. 자세한 譯註를 통해 전래본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항목별로 죽간에 기록된 고문자 예정(隸定) 자형, 통가, 파생의 등을 적용한 석문(釋文)과 한국어 번역을 표로 제시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보충한다.

1. 2호간: 去仁, 惡乎成名? 造次顛沛必於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去 | 身 | 亞 | 虐 | 成 | 名 | 造 | 跽 | 遠 | 遙 | 必 | 於 | 此 |
| 去仁 | 惡乎成名 | | | | 造次顛沛必於此 | | | | | | | |
| 인을 버리면 어찌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급박할지라도 좌절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근거해야 한다. | | | | | | | | | | | | |

이 구절은 《論語》〈里仁〉: “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과 관련 깊다. 전래본 〈里仁〉은 위 구절 앞에 “子曰, 富與貴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貧與賤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不去也。”가 있으나 安大簡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부분은 후대인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련구 중에서 “君子無終食之間違仁”도 새로 추가된 부분이다.

安大簡의 문자를 비교해보면 ‘身’은 ‘仁’의 전국문자 ‘𠄎’의 생략형이다. 郭店楚簡 《緇衣》 11호간 ‘𠄎’과 같이 ‘身’과 ‘心’으로 구성된 자형이 일반적이거나 2호간의 ‘𠄎’은 ‘身’으로 생략된 점이 특이하다. ‘𠄎’은 ‘虎’와 ‘口’로 구성된 ‘𠄎’이다. 楚簡, 楚帛書에서 여기서 ‘乎’는 ‘虎’가 성부인 자형으로 표시하였다. ‘口’로 구성된 ‘𠄎’ 외에도 ‘𠄎’, ‘𠄎’, ‘𠄎’ 등의 다양한 이체자로 ‘乎’를 표시한다.

‘𠄎’은 ‘辵’과 ‘卽’으로 구성된 ‘𠄎’이다. 전국시대 郭店楚簡 《老子》丙1호간의 “太上，下知有之。其卽親譽之。”를 전래본 《老子》과 비교하면 ‘卽’은 ‘次’의 가차자로 해석한다. 따라서 ‘卽’이 성부인 ‘𠄎’도 ‘次’로 읽을 수 있다. ‘𠄎’은 ‘辵’과 ‘貞’으로 구성된 ‘𠄎’이다. 楚簡에서 ‘貞’으로 구성된 자형은 ‘眞’이나 ‘眞’으로 구성된 자형으로 해석한다. 郭店楚簡 《老子》乙16호간 “修之身，其德乃貞”과 전래본 《老子》 “修之於身，其德乃眞”이 의미상 일치한다. 따라서 ‘貞’은 ‘眞’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𠄎’도 ‘眞’으로 구성된 ‘顛’과 서로 통할 수 있다. ‘𠄎’은 ‘辵’과 ‘番’으로 구성된 ‘𠄎’이다. 이 자형과 동일한 자형은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다. 또한 ‘番’으로 구성된 자형과 ‘浦’ 또는 ‘市’로 구성된 자형이 서로 통가된 사례도 없다. 정리자는 ‘𠄎’을 ‘𠄎’의 이체자로 보고 ‘넘어지다’로 해석하였다. ‘造’, ‘𠄎’, ‘𠄎’, ‘𠄎’은 모두 발로 이동하는 ‘辵’으로 구성된 자형이다. 전래본의 “造次”와 “顛浦”는 각각 “급히 가다”, “넘어지다”의 뜻이지만 ‘이동’을 뜻하는 형부(形符)를 포함한 한자는 ‘造’ 뿐이다. 이처럼 의미상 관련 있는 어휘의 문자를 동일한 의미 범주의 형부로 구성된 현상을 “유화(類化)”라고 한다.⁶⁾

安大簡의 ‘此’는 전래본에서 ‘是’로 바뀌었다. 두 한자 모두 ‘이것’으로

6) 劉釗, 《古文字構形學》,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6, 95쪽.

해석할 수 있으나 ‘是’는 지칭 용법뿐만 아니라 강조 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이다. 이 구절이 전래본으로 전수되면서 ‘仁’을 지칭하던 ‘此’가 ‘仁’을 지칭하는 동시에 강조하는 ‘是’로 바뀌었다.

2. 3호간: 哉, 史魚! 邦有道, 如矢. 邦無道, 如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才 | 史 | 魚 | 邦 | 又 | 道 | 女 | 矢 | 邦 | 亡 | 道 | 女 | 矢 |
| 哉 | 史魚 | 邦有道 | | | 如矢 | | 邦無道 | | | 如矢 | | |
| ~구나! 사어여! 나라에 도가 있어도 화살 같고 나라에 도가 없어도 화살 같다. | | | | | | | | | | | | |

3호간의 이 구절은 《論語》〈衛靈公〉: 直哉史魚! 邦有道, 如矢, 邦無道, 如矢. 君子哉蘧伯玉! 邦有道, 則仕, 邦無道, 則可卷而懷之.의 일부분이다. 거백옥(蘧伯玉) 관련 내용은 이후 추가된 내용으로 보인다. 하안(何晏)의 《論語集解》에 인용된 공안국(孔安國)의 해석에 의하면 ‘史魚’는 衛의 대부 사추(史鱗)이며 ‘국가에 도가 있는지와 관련 없이 행동이 화살같이 곧고 말에 왜곡됨이 없다.’고 하였다. 2호간의 마지막 부분이 파손되어 ‘直’자를 확인할 수 없다.

3. 7호간: 晏平仲善交哉! 久狎而長敬.

| | | | | | | | | | | |
|--|---|---|---|---|---|-------|---|---|---|---|
| | | | | | | | | | | |
| 晏 | 平 | 仲 | 善 | 交 | 才 | 舊 | 虞 | 而 | 長 | 敬 |
| 晏平仲善交哉 | | | | | | 久狎而長敬 | | | | |
| 안평중은 사람과 잘 사귀는구나! 오랫동안 친하게 지낼수록 타인에 대한 공경심이 커진다. | | | | | | | | | | |

7호간의 이 구절은 《論語》〈公治長〉의 “晏平仲善與人交, 久而敬之.”과 관련 깊다. 우선 문자 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간의 여기서 ‘哉’는 대부분 ‘才’를 가차하여 표기하였다. ‘才’는 서주(西周) 청동기에서 ‘在’의 가차자로 사용하였으나 전국시대 초간에서는 여기서 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哉’는 ‘戔’가 성부인데 이 중에 ‘才’를 포함하므로 ‘才’만으로도 여기서 ‘哉’를 표기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久’의 가장 오래된 고문자는 전국시대 진간(秦簡)과 秦 계열 도문(陶文)에서 볼 수 있다. 수호지(睡虎地) 진간 《日書》乙 228호간 ‘久’, 《陶錄》6.425.3의 𠄎 모두 秦 계열의 문자이다. 이 자형들의 정확한 사용 연대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전국시대 초간은 아직 이 자형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래 ‘舊’는 ‘新’의 반의어, 또는 ‘長久’의 뜻을 표기하는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선택적으로 표기하였으며 ‘久’로 이 의미를 표기한 것은 漢 이후의 일이다. 𠄎은 ‘虎’와 ‘牽’으로 구성된 ‘虞’이다. 초간에서 이와 동일한 용례로는 上博楚簡 《曹沫之陣》 18호간 ‘虞’, 包山楚簡 81호간 ‘𠄎’ 등이 있다. 주로 ‘兵甲’의 ‘甲’으로 해석한다. 또한 郭店楚簡 《窮達以時》 6호간 ‘𠄎’과 같이 ‘木’이 추가된 ‘櫛’는 ‘柙’으로 해석한다. 즉, ‘虞’으로 구성된 자형은 ‘甲’ 또는 ‘甲’으로 구성된 자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7호간 ‘虞’는 ‘狎’으로 해석한다. 이가호(李家浩)도 郭店楚簡 《語叢三》 50호간 “志於道, 虞於德”의 ‘虞’를 ‘狎’으로 해석한 바 있다.⁷⁾

전래본 《論語》〈公治長〉 “晏平仲善與人交, 久而敬之.”는 ‘久’와 ‘敬’으로 인하여 역대로 해석상의 논쟁이 있어 왔다. 황간(皇侃)은 《論語義疏》에서 “凡人交易絕, 而平仲交久而人愈敬之.”라고 했다. 즉, 안평증은 사람과 오래 사귀어도 남들이 더욱 더 존경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희(朱熹)는 《論語集注》에서 정자(程子)의 “人交久則敬衰, 久而能敬, 所以為善.”를 인용하였다.⁸⁾ 다른 사람은 오래 사귀면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만 안평

7) 李家浩, 〈讀郭店楚墓竹簡瑣議〉, 《中國哲學》 第20輯, 1999, 352쪽.

중은 오래 교제해도 능히 남을 공경할 수 있으므로 ‘善’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敬’의 주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왔는데 7호간의 “久狎而長敬”은 ‘敬’의 주체가 안평중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쟁을 해결해줄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4. 7호간: 古之學者自爲, 今之學爲人

| | | | | | | | | | | |
|---|---|---|---|---|---|---|---|---|---|---|
|  |  |  |  |  |  |  |  |  |  |  |
| 古 | 之 | 學 | 者 | 自 | 爲 | 舍 | 之 | 學 | 爲 | 人 |
| 古之學者自爲 | | | | | | 今之學爲人 | | | | |
| 옛 학자는 스스로 학문하였으나 지금의 학자들은 남을 위해 학문을 한다. | | | | | | | | | | |

이 구절은 《論語》〈憲問〉의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과 관련 깊다. 7호간의 ‘舍’는 ‘今’과 ‘口’로 구성된 ‘舍’이다. 자형 구조는 ‘포함하다’, ‘함의’ 등을 표기하는 ‘舍’와 동일하나 ‘舍’의 ‘口’는 의미 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필(飾筆)이다. 7호간의 “今之學”은 전래본의 “今之學者”와 다르게 ‘者’가 생략되어 있다.

또한 7호간의 “自爲”는 전래본에 “爲己”로 쓰여 있다. 이 차이에 대해 정리자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우선 7호간의 “自爲”와 “爲己”가 의미상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自爲”는 “스스로 하다”이며 “爲己”는 “爲我”, 즉 “나를 위하다”라고 해석하였는데 이 두 가지 용례가 함께 등장하는 《韓非子》〈外儲說右下〉의 “此明夫恃人不如自恃也, 明於人之爲己者不如己之自爲也”, 《淮南子》〈兵略〉의 “故善用兵者, 用其自爲用也. 不能用兵者, 用其爲己用也.” 등을 제시하였다. 《韓非子》는 “남을 믿는 것이 스스로를 믿는 것만 못함을 분명히 보여주며 남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

8) [宋]朱熹 撰, 《四書章句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3, 80쪽.

로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해석한다. 《淮南子》도 “용병을 잘하는 자는 스스로 용병술을 구사하는 사람을 등용하며 용병에 능하지 못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용병술을 구사하는 사람을 등용한다”고 하였다. “爲己”는 “自爲”보다 이기적인 측면이 강하며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지 못한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전래본 《論語》 “爲人”에 대비하는 용례로는 능동적이면서 자발적인 “自爲”가 더 적절하다.

5. 8호간: 君子見善以思, 見不善以戒




| | | | | | | | | | | |
|---|---|---|---|---|---|---|---|---|---|---|
|  |  |  |  |  |  |  |  |  |  |  |
| 君 | 子 | 見 | 善 | 曰 | 思 | 見 | 不 | 善 | 曰 | 戒 |
| 君子見善以思 | | | | | 見不善以戒 | | | | | |
| 군자는 선한 사람을 보면 생각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경계한다. | | | | | | | | | | |

8호간의 이 구절은 《論語》〈里仁〉의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과 관련 깊다. 安大簡 《仲尼曰》의 “君子”는 전래본에서 볼 수 없으나 《太平御覽》 402권 〈敍賢〉에서는 “《論語》〈里仁〉曰, 君子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와 같이 인용되었다. 이 구절의 가장 큰 차이점은 ‘善’과 ‘賢’이다. 정리자는 이 두 한자의 관계를 《論語》〈子路〉 “善人爲邦百年”에 대한 황간의 “善人, 謂賢人也.”로 설명하였다. ‘善’은 서주 청동기부터 출현한 한자로 다양한 긍정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한자이다. 따라서 시대에 관계없이 자형 그 자체로 의미를 표현해왔으며 통가자를 별도로 활용하지 않았다. 허신(許慎)은 《說文解字》에서 ‘賢’을 “多才也”로 해석하였으며 자형을 성부 ‘叕’과 형부 ‘貝’로 구성된 형성자로 분석하였다. 또한 ‘叕’은 ‘擊’으로 해석하고 이 자형을 ‘賢’의 고문자로 간주하였다. 초간에서 ‘賢’을 표기하였던 자형은 ‘叕’, ‘擊’ 등이 있다. ‘叕’이 ‘견고하다’를 뜻하다

가 ‘현명하다’, ‘어질다’로 의미가 파생된 점은 ‘吉’이 본래 ‘단단하다’로부터 ‘길하다’로 파생된 현상과 비슷하다. ‘貝’로 구성된 ‘賢’은 里耶秦簡 8-133호간 ‘賢’과 같이 전국시대 이후로 등장한다. 따라서 安大簡의 ‘善’이 ‘賢’으로 바뀐 것은 ‘善’의 의미 영역을 더 명확하게 지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호간의 ‘思’는 전래본에서 ‘思齊’로 바뀌었다. 주희는 ‘思齊’를 “자기도 이와 같은 선이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또한 8호간의 ‘戒’도 전래본은 “內自省”으로 쓰여 있다. 선하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마음 속으로 자신을 반성한다는 뜻이다. 安大簡에서 한 글자만으로 표기된 ‘思’와 ‘戒’의 내적 함의를 전래본에서 상세하게 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9~10호간: 康子使人問政於仲尼. 曰, 丘未之聞也. 使者退. 仲尼曰, 見之君子, 其言小人也. 孰正而可使人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康 | 子 | 使 | 人 | 問 | 於 | 中 | 尼 | 曰 | 丘 | 未 | 之 | 聞 | 也 |
| 康子使人問政於仲尼 | | | | | | | | 曰 | 丘未之聞也 | | | | |
| 계강자가 사람을 보내어 중니에게 정치를 물었다. 가로되, “나는 정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使 | 者 | 退 | 中 | 尼 | 曰 | 見 | 之 | 君 |
| 使者退 | | | 仲尼曰 | | | 視之君子 | | |
| 사자가 물러났다. | | | 중니왈 | | | “나는 그를 군자로 보았는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元 | 言 | 尖 | 也 | 𠄎 | 正 | 而 | 可 | 貞 | 人 | 婚 |
| 其言小人也 | | | | 篤正而何使人問 | | | | | | |
| 그가 하는 말은 소인이구나. 돈독하고 바른 사람이면서 어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겠는가? | | | | | | | | | | |

전래본 《論語》에서 계강자가 등장하는 내용은 〈顔淵〉의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이다. 계강자가 직접 공자에게 정치를 묻고 공자가 이에 대해 답하는 내용이지만 9~10호간은 계강자가 사람을 파견하여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 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는 ‘史’의 전국시대 초간 자형이다. 본래 ‘史’, ‘吏’, ‘使’는 동일한 형태로부터 분화된 자형들이다. 갑골문과 서주 청동기의 ‘使’는 ‘史’로 표기하였다. ‘人’으로 구성된 ‘使’가 처음 출현한 자료는 《詛楚文》이며 秦이 중국을 통일한 후 ‘使’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史’로 ‘使’를 표기하는 초간의 언어 습관은 갑골문의 언어 습관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婚’과 ‘辭’는 ‘問’ 또는 ‘聞’을 표기하는 자형이다. 《說文解字》에도 ‘聞’의 고문(古文)으로 ‘𦉳’을 수록한 바 있는데 이 자형이 바로 ‘婚’이다. ‘聞’과 ‘問’은 그 기원이 동일하며 문맥에 따라 의미를 구분하였다. 이 부분에서도 첫 번째 ‘婚’는 ‘聞’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 ‘婚’는 ‘問’으로 해석하였다.

는 ‘𦉳’의 전국시대 초간 자형이다. 초간에서 주로 ‘篤’의 통가자로 사용된다. 정리자는 이 자형을 ‘孰’의 통가자로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초간에서 ‘孰’을 표기하는 자형은 ‘𦉳’이다. 단옥재(段玉裁)는 ‘𦉳’과 ‘篤’은 고금자(古今字) 관계이며 ‘𦉳’과 ‘𦉳’은 음과 뜻이 같다고 하였다.⁹⁾ ‘𦉳’과 ‘𦉳’은 초간에서 각각 ‘孰’과 ‘篤’을 분담하여 표기하였다. 정리자는 전래본

9) [漢]許慎, [清]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229쪽.

의 내용에 근거하여 ‘孰’으로 해석하였으나 발표자는 초간의 일반적인 통가 습관에 의거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10호간의 ‘𠄎’는 ‘篤’으로 해석해야 하며 ‘可’는 ‘何’로 해석해야 한다. ‘孰’이 아니라 ‘篤’으로 해석한다면 마지막 구절에서 의문문을 표시할 성분이 없어진다. 초간에서 ‘何’는 ‘可’로 표기한다. 이 두 가지 해석을 마지막 구절에 반영하면 “篤正而何使人問”이며 “돈독하고 바른 사람이면서 어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겠는가?”로 해석할 수 있다.

7. 10호간: 一簞(簞)飢(食), 一勺(勺)漚(漿), 人不甦(勝)兀(其)憊(憂), 𠄎(己)不甦(勝)其樂, 虛(吾)不女(如)韋(回)也.

| | | | | | | | | | | |
|---|---|---|-----|---|---|-------|---|---|---|---|
| | | | | | | | | | | |
| 一 | 簞 | 飢 | 一 | 勺 | 漚 | 人 | 不 | 甦 | 兀 | 憊 |
| 一簞食 | | | 一勺漿 | | | 人不勝其憂 | | | | |
| 한 바구니의 음식과 한 술갈의 미음은 다른 사람은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𠄎 | 不 | 甦 | 其 | 樂 | 虛 | 不 | 女 | 韋 | 也 | |
| 己不勝其樂 | | | | | 吾不如回也 | | | | | |
| (안회) 자신은 오히려 그 즐거움에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안회만 못하다. | | | | | | | | | | |

이 구절은 전래본 《論語》〈雍也〉의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과 관련 깊다. 안회(顔回)는 공자가 특히 아꼈던 제자 중에 하나로 《論語》에 여러 차례 언급되는 인물이다. 安大簡 《仲尼曰》의 25개 발언 중에서 2가지 발언 중에 안회를 언

급하였다. 전래본의 구절 중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賢哉回也!”과 “在陋巷”이다. “賢哉回也!”은 安大簡의 “吾不如回也”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在陋巷”은 한 바구니의 음식과 한 술갈의 미음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빈곤을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구절이다.

문자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𩇛는 ‘水’와 ‘𩇛’으로 구성된 ‘灑’이다. 초간의 ‘𩇛’은 부사적 용법 ‘將’이나 장군의 ‘將’을 표기한다. 또는 ‘醬’으로도 해석한다. 信陽楚簡 2-21호간 “食𩇛”,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179호간 “𩇛四分升—” 모두 ‘醬’으로 해석한다. 《說文解字》 ‘醬’의 고문으로 수록된 ‘𩇛’이 바로 ‘𩇛’이다. ‘醬’의 ‘酉’는 ‘발효된 액체’를 뜻하는 형부이며 ‘漿’의 ‘水’는 모든 액체를 뜻하는 형부이다. ‘酉’와 ‘水’는 모두 액체의 범주 속에 포함되는 형부이므로 서로 통용될 수 있다. 정리자는 ‘漿’을 신맛이 약간 나는 음료라고 하였다. 전래본은 구체적인 음료 명칭보다는 ‘食’과 대비를 이루는 ‘飲’으로 표기하였다.

𩇛는 형부 ‘力’과 성부 ‘𩇛’으로 구성된 ‘𩇛’이다. ‘𩇛’은 ‘乘’의 고문(古文)으로 《說文解字》에 수록된 ‘𩇛’과 일치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출토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勝’의 고문자는 秦의 새인(璽印)이나 秦簡 자형이다. 《集粹》 460의 𩇛, 睡虎地秦簡 《日書》乙 83호간 ‘𩇛’ 등이 그 예이다. 그 밖에 다른 지역은 ‘乘’의 고문으로 구성된 자형으로 ‘勝’을 표기하였다. 실제로 《論語》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 문헌에서도 ‘勝’과 ‘乘’의 통가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高誘(高誘)는 《呂氏春秋》〈權勳〉 “天下兵乘之”의 ‘乘’을 ‘勝’으로 해석한 바 있다.¹⁰⁾ 전래본의 ‘堪’은 ‘勝’과 ‘호훈(互訓)’ 관계인 한자이다. 뜻이 동일해서 서로 해석해줄 수 있는 한자이므로 전래본의 ‘堪’은 安大簡과 의미상 동일하다.

𩇛는 ‘韋’의 초간 자형이다. 초간에서 인명(人名)으로 ‘回’를 표시할 때 항상 ‘韋’로 표시하였다. 安大簡 《仲尼曰》 뿐만 아니라 上博楚簡 《君子爲禮》 1호간 ‘𩇛’ 등도 안회의 이름인 ‘回’를 표기한다. 한편, 上博楚簡

10) 宗邦福等 主編, 《故訓匯纂》, 北京, 商務印書館, 2003, 41쪽.

《顏淵問於孔子》 5호간 見善不及 見不善如探湯 吾見其人矣 吾聞其語矣 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 吾

8. 10호간~11호간: 見善女(如)不及, 見不善女(如)溲(囊). 董(僅)呂(以)卑(避)難(難)膏(靜)尻(居), 呂(以)成(其)志. 白(伯)晷(夷)弔(叔)即(齊)死於首陽(陽), 手足不彘, 必夫人之胃(謂)虐(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見善如不及 | | | | | 見不善如囊 | | | | | 僅以避難靜居 | | | | | |
| 선을 보면 그것에 미치지 못한 듯 노력해야 하고 선하지 못한 것을 보면 엄습을 받듯 두려워해야 한다. 환란을 피하여 조용한 곳에 살기만 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以成其志 | | | | 伯夷叔齊死於首陽 | | | | | | | |
|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 | | | |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죽었으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手足不彘 | | | | 必夫人之謂乎 | | | | | |
| 손과 발로 덮을 수가 없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두고 말한 것이다. | | | | | | | | | |

이 구절과 관련된 항목은 전래본 《論語》〈季氏〉 11번째 “見善如不及, 見不善如探湯. 吾見其人矣, 吾聞其語矣. 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 吾

聞其語矣, 未見其人也。”와 12번째 “齊景公有馬千駟, 死之日, 民無德而稱焉. 伯夷叔齊餓于首陽之下, 民到于今稱之. 其斯之謂與?”이다. 安大簡은 이 두 항목이 분리되기 전의 형태를 보여준다.

문자 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𠂔는 ‘溘’으로 예정이다. 이 자형은 ‘襲’으로 해석한다. 서주 청동기 《戠簋》(集成 4322) 𠂔와 같이 이미 서주 시기부터 ‘습격’을 뜻한 ‘襲’의 통가자로 사용되어 왔다. 전래본의 “探湯”은 “뜨거운 물에 손을 대다”로 직역한다. 이 구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 유보남(劉寶楠)은 《論語正義》에서 《大戴禮記》〈曾子立事〉 “見不善恐其及己也”를 제시하였다.¹¹⁾ 자신에게 이를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이 해석과 불시에 습격 받는 ‘襲’과 연관이 있다.

𠂔는 ‘卑’의 초간 자형이다. ‘卑’로 구성된 초간 자형은 ‘辟’로 구성된 자형으로 해석하였다. 郭店楚簡 《緇衣》 23호간 ‘𠂔’ 역시 ‘卑’이다. 이 용례는 ‘髣’으로 해석한다. 淸華簡 《皇門》 2호간 ‘𠂔’도 ‘卑’의 초간 자형이며 ‘髣’로 해석한다. 11호간의 ‘𠂔’를 ‘避’로 해석하는 것 역시 다른 초간의 통가 현상과 일치한다. “避難靜居”는 “환란을 피하여 조용히 산다”는 의미로 전래본의 “隱居”와 의미상 동일하다.

백이와 숙제의 고사는 〈季氏〉 12번째 항목과 다른 맥락으로 수록되었다. 이보다도 《韓非子》〈外儲說右下〉에 수록된 소묘(昭卯)의 “伯夷以將軍葬於首陽山之下, 而天下曰, 夫以伯夷之賢與其稱仁, 而以將軍葬, 是手足不掩也.”과 일치한다.

IV. 결론

본고는 安大簡 《仲尼曰》의 문헌학적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仲尼曰》에 수록된 공자의 25가지 발언 중에서 전래본 《論語》에 수록

11) [淸]劉寶楠 撰, 《論語正義》下, 北京: 中華書局, 1990, 665쪽.

된 내용과 관련 깊은 8가지 발언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각 항목별 차이를 일률적으로 귀납할 수 없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문자, 어휘의 관점에서 비교하였을 때 전래본 《論語》는 安大簡 《仲尼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전래본 《論語》에서 해석상 모호한 맥락을 安大簡 《仲尼曰》을 통해 확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전래본과 비교하였을 때 전국시대 공자의 어록집은 특별한 기준이나 형식이 없는 선집(選集)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형식의 어록집이 유통되었을 것이며 그 중의 상당수가 전래본 《論語》외의 다른 문헌에도 인용, 수록되었을 것이다. 네 번째, 전래본 《論語》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자의 발언은 여러 후대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가공되었을 것이다. 가공 방식은 해석, 축약, 항목 나누기, 선별하기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

- 郭錫良等 編著, 중국 고대 언어와 문헌 연구 공동체 학이사 譯, 《고대중국어》, 서울: 역락, 2016.
- 수호지진묘죽간정리소조 엮음, 윤태석 옮김, 《수호지진묘죽간》, 서울: 소명출판, 2010.
- 요진우 著, 이종환 譯,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 장백잠·장조태 著, 최석기·강정화 譯, 《儒教經典과 經學》, 서울: 경인문화사, 2002.
- 安徽大學漢字發展與應用研究中心 編, 《安徽大學藏戰國竹簡(二)》, 上海: 中西書局, 2022.

- 白于藍,《戰國秦漢簡帛古書通假字彙纂》,福州:福建人民出版社,2012.
- 單曉偉 編著,《秦文字字形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7.
- 黃懷信 主撰,《大戴禮記彙校集注》,西安:三秦出版社,2005.
- 江學旺 編著,《西周文字字形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7.
- 李守奎,《包山楚墓文字全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
- 劉寶楠 撰,《論語正義》下,北京:中華書局,1990.
- 劉釗,《古文字構形學》,福州:福建人民出版社,2006.
- 上海古籍出版社 編,《十三經注疏》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7.
- 許慎 撰,段玉裁 注,《說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1.
- 徐在國·程燕·張振謙 編著,《戰國文字字形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7.
- 宗邦福·陳世鏡·蕭海波 主編,《故訓匯纂》,北京,商務印書館,2003.
- 朱熹 撰,《四書章句集注》,北京:中華書局,1983.
- 이두은,〈安徽大學藏戰國竹簡仲尼曰篇注解〉,《중국어인문과학》 84집, 2023.
- 李家浩,〈讀郭店楚墓竹簡瑣議〉,《中國哲學》 第20輯,1999.
- 徐在國·顧王樂,〈安徽大學藏戰國竹簡仲尼篇初探〉,《文物》,2022.

<Abstract>

It is estimated that the *zhongniyue* was compiled between 400 BC and 350 BC. Since it is similar to the date of death of Confucius and is likely to be the same as the date of survival of the Zisi(子思), there is a lot of possibility that it is an early version of the *lunyu*. In addition, in that phrases related to other pre-Qin literature are included, various clues about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lunyu* and the history of the edition can be secured.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philological characteristics of *zhongniyue*. First, due to the fact that Confucius was

referred to as Zhongni,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is the work of a school other than the traditional *lunyu* and Confucian school. Second, it is possible that the degree used in the *zhongniyue* was edited by a person with a view of the degree of thought due to the related vocabulary. With this in mind, eight phrases that can be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lunyu* were selected and analyzed among the Confucius remarks included in the *zhongniyue*. The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this are as follows.

First, when compared from the perspective of vocabulary, the traditional *lunyu* is a version in which the contents of the *zhongniyue* are embodied. Second, in the traditional *lunyu*, it is possible to clearly grasp the ambiguous context in interpretation through *zhongniyue*. Third, compared to the traditional version, the Confucius collection compiled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is an anthology without any special standards or forms. Fourth, Confucius' remarks were constantly processed by later generations until the traditional *lunyu* was confirmed.

Key Words : 논어(*lunyu*), 중니왈(*zhongniyue*), 출토문헌(excavated documents), 초간(The Chu state bamboo slip), 안대간(Anhui University bamboo slip), 전래본(hand-down documents), 판본 비교(a comparison of editions)

